

문화

행복한 책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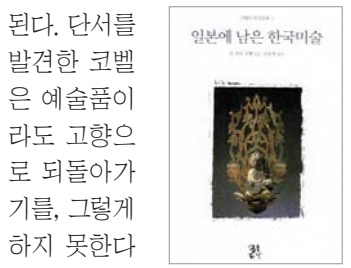
존 카터 코벨의 '일본에 남은 한국미술' <글을 읽다 퀘>

일본이 책과 글이란 것을 최초로 알아가던 시기에 한국인이 일본에 끼친 영향은 이집트학에서 다루지는 피라미드만큼이나 우뚝하다. - Roy A. Miller

한때 자신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그들 문화 대부분을 전수해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저자는 일본인들이 오늘날 '가장 일본적인 문화양식'으로 자부하는 다도, 꽃꽂이, 수묵화, 노 등도 한국이 그 뿌리라고 말한다. 5~7세기에 한국이 전파한 문화가 일본 문화를 성장하게 하고 풍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진실이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필요 하지만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인다.

존 카터 코벨 박사는 서양사학자 출신으로 1930년부터 일본 문



다. 단서를 발견한 코벨은 예술품이라도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원래의 이름이라도 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장인들의 슬픈 영혼과 그녀가 조우한 것일까. 2010년 서울에서 열린 '고려불화대전'을 보고 온 나는 일본에 남은 예술품 중, '고려불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송불정맥을 쫓던 고려, 사찰은 왕실과 마찬가지로 호사스러웠다. 불화를 그리는데 금가루를 아끼지 않았으며 화법은 화려하고 섬세했다. 뛰어난 장인들이 앞 다퉈 불화를 그렸다.

일본문화 성장 뒤에 한국 있었다

화에 관심을 가진다. 기모노를 입고 일본에서 생활할 정도로 열성적이다. 예술품을 보는 뛰어난 감각을 가진 그녀는 일본 예술품에 매력을 느끼면 그걸 수집하는 습관을 가진다. 출처가 분명치 않은 예술품은 과연 어느 나라 것일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여서 국제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뒤늦게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 역사까지 공부한다. 코벨의 호기심과 철저한 현장 연구로 한국 장인들의 숨겨진 결론에 이른다.

백제가 망해서 일본으로 망명한 장인들, 예술의 자유를 찾아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시대의 불교 화가들은 낯선 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자신들만의 표식을 작품에 남겼다. 그것이 오늘날 한자국 자국민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억지 속에서 진실은 밝혀질 수 있는 단서가



차노희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황영성, 한국 전통 미의식 중국에 보여준다

10~20일 베이징 금일미술관서 개인전

가족시리즈·드로잉 작품 등 82점 전시

을 한번에 감상할 수 있다.

황씨는 평일엔 미술관장 업무를, 주말엔 작품 활동을 병행하는 강행군을 펼치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다.

중국 전시 기획자인 황두는 작가 소개 글에서 "황씨의 작품은 동양과 서양의 예술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그의 예술은 전통과 연관돼 있으면서도 한국 예술의 궤적을 뛰어넘었고 전통, 추상, 기하학적, 장식성과 평면성을 아우르는 처리를 통해 '동양적 심상'이 가득한 새로운 예술 양식을 개척해냈다"고 평했다.

조선대 미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황조근조훈장(2006년), 이인성 미술상(2004년), 금호예술상(1993년), 제25회 문예 카를로 국제회화 특별상(1991년) 등을 수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amily Story 2012'

배꼽잡을 준비 되셨나요?

'허둥9단의 바라바라' 13일 동산아트홀

배꼽잡는 코믹 연극이 온다.

'광대복발 코믹연극- 허둥9단의 바라바라'가 오는 13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6시)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바라바라'는 KBS 인기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서 '허둥9단'을 연기한 개그맨 허둥한씨가 연출 및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을 칠한 채 '살마, 그것은 아니겠지요?'라는 유행어를 외치던 그가 제작자로 변신, 연극배우 5명과 함께 무대에 올리고 있다.



1막에서는 3분 이내의 짧은 개그를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인다. 2막은 관객들에게 친숙한 영화 '친구'를 패러디한 연극이다.

기존 스토리가 있기는 하지만 관객반응에 따른 다양한 에드립을 가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티켓 가격 일반 3만원, 청소년 2만원, 문의 062-360-8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성악 초등부 입상자

<심사위원>

- 박형해(광신대 교수) 김철웅(목포대 교수) 홍승연(광주교육대 교수) 김선희(조선대 교수) 김영지(초당대 교수) <초등부 1,2학년> ▲최고상 14 오주원(목포영산2) ▲금상 23 주예진(운리2) 30 김하윤(살레시오2) 34 강가빈(만호2) 36 최정원(운리1) 42 김혜솔(연제2)

▲은상

- 1 장윤아(수원1) 11 이시욱(살레시오2) 25 최승우(살레시오2) 31 박소영(광주교육대학교교과주부설2) 32 노정인(불로1) 38 오현아(문정1) 39 이재준(광주송원2) 45 전시은(문우1) 47 정예진(광주송원1) 55 한신소(살레시오2) ▲동상 2 황지유(선창1) 4 임수빈(살레시오2)

- 8 최윤채(운리1) 15 박규남(화계2) 20 김규림(살레시오2) 24 박소현(남약2) 37 이하은(살레시오2) 46 김재원(광주중학2) 54 정준우(운리1) 25 김태정(초등부 3,4학년) ▲최고상 23 박희진(살레시오4) ▲금상 15 서진선(여수양지4) 18 김해민(문흥중앙3) 27 차윤서(화순제일3) 33 조수현(문정4) 39 최혜민(불로4) 43 이선우(정암4)

▲은상

- 5 이재환(광주교육대학교교과주부설4) 7 강주은(여수양지3) 9 최지은(광주남4) 20 이수아(광주송원4) 22 김창우(연제3) 26 나시윤(운천4) 31 민소정(광주효덕4) 40 김은민(금당4) 44 이지운(비야3) ▲동상 4 양은성(광주교육대학교교과주부설4) 11전의중(양지4) 14박지우(광주송원3) 16유재원(여수한리3)

- 24임서진(문정3) 29정서진(금당3) 32서은우(광주송원3) 37김성훈(풍암4) 45김수아(신창4) <초등부 5,6학년> ▲최고상 25 김태연(강진중앙6) ▲금상 8 임예지(목포한빛5) 23장성훈(여수양지6) 29김태운(광주송원5) 41한 진(순천왕운5) 43한승민(하백5) ▲은상 3 류도경(살레시오6) 10 이지우(금당6)

- 11 문재연(진만5) 12 진영운(광주송원5) 24 김서현(광주송원5) 33 오영서(광주교육대학교교과포부설5) 40 차에은(광주문암6) ▲동상 6 강유진(진만5) 9 문선영(광주송원5) 17 박혜민(여수양지5) 19 김소연(연제6) 26 김민서(금당5) 28 이수아(광주효동6) 30 최재희(홍흥중앙5) 31 김다빈(송정중앙6) 32 이상훈(광주송원6) 44 박한빈(봉산5)

채송화 귀국 바이올린독주회

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채송화 귀국 바이올린독주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여수 출신으로 전주에 고재학 당시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채씨는 전남대를 거쳐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에서 수학했다. 현재 동산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모이즈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이다

연주회의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브로흐의 모음곡 '바알 섀' 중 제2번 '니군',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다. 피아노 반주는 조연미씨가 맡았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30th Anniversary. Features a 30% OFF SALE and lists various branch locations and contact numbers. Includes a logo with a knight on a horse and flags of South Korea, USA, Germany, Canada, and Denmark.

Advertisement for Bukgodang Hanakbap. Promotes ginseng products and traditional Korean food. Features a large image of ginseng and a map showing the location in Gwangju. Text includes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and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